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순득,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Soon-deuk Joun,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의 차이 및 영향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예술심리상담사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t-test,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연령 및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은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self-efficacie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and their job involvem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8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which includ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latter of whi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caus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showed that mean age and monthly income significantly affected self-efficacy. Second, mean monthly income impa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Third, self-efficacy perceived by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involvemen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job involvement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Keywords : Art Psychological Counselor, Self-Efficacy, Job Involvement, Age, Monthly Income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Peace5883@hanmail.net

Received June 15, 2021

Revised July 22, 2021

Accepted August 5,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반면 코로나 19 등의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감정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예술로 심리 상담을 매체로 하는 예술심리상담사들의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심리상담은 대화, 에니어그램,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술이라는 매체로 상담하는 자로 예술심리상담사란 치료사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본인의 심리적인 소진이나 내담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때는 내담자에게 악영향을 주며, 만성피로 같은 신체적 이상이나 자존감,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예술심리상담사는 예술(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요법, 푸트레라피 등)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의 소통이며,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예술활동을 통해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2]. 위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란 미술, 음악, 동작 등의 활동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 소통하고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병리적으로 치료하는 자라고 한다[3]. 이와 같이 예전에 없던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내담자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와 직무몰입의 사이에서 직무만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은 상담효과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몰입이란, “직무 몰입은 자신의 직무와 심리적으로 동화하는 정도 또는 전체적인 자아 이미지 속에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이며[5], 또한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직무만족 역시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직무에 몰입하게 되면 직무성과가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강화되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타 변인과 자기 효능감, 상담성과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으며,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타 변인과 자기 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성인애착 안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능을 높여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기여함을 경험적으로 확인 되었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결과를 살펴보면, 예술심리상담사가 직무에 몰입하게 되면 상담성과가 높아지며, 상담만족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직무 몰입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무 몰입을 위해서는 상담사의 자기성찰과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말하며[9],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을 잘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10]. 또한 예술심리상담사의 적극적인 작용으로 인해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특이성이 중요성을 가지고 결국 상담사 스스로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이다[11]. 이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상황과 독립적 성향처럼 작용하지 않아서 자기 효능감의 강도와 지속여부는 상담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12].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며 내담자에게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관계와 좋은 공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이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에 따른 직무 몰입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에 몰입하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상담교육에 참여한 예술심리상담사들의 직무 몰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심리상담 성과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상담성과와 상담만족도에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직무 몰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에 따른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3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48부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자기 효능감 21문항, 직무 몰입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월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현철[14]이 사용한 자기 효능감의 측정도구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오[15]가 사용한 직무 몰입 측정도구는 20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자기효능은 .772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건강성 .835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무 몰입은 .750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elf-efficacy	21	.772
Job immersion	20	.750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 상관관계, t-test,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심리상담사의 성별은 남자 37명(25.0%), 여자 111명(75.0%)으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3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8명(25.7%), 30대가 22명(14.9%), 20대가 21명(14.2%), 60대 이상이 1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수준은 300만원 이상-399만원 이하가 69명(4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가 44명(29.7%), 400만원 이상-499만원 이하가 18명(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148)	
		Frequency	Ratio(%)
Sex	Male	37	25.0
	Female	111	75.0
Age	20s	21	14.2
	30s	22	14.9
	40s	53	35.8
	50s	38	25.7
	Over 60s	14	9.5
Monthly income level	1,600,000 won or less	3	2.0
	1,600,000-1,990,000 won	7	4.7
	2,000,000-2,990,000 won	44	29.7
	3,000,000-3,990,000 won	69	46.6
	4,000,000-4,990,000 won	18	12.2
	5,000,000 won or more	7	4.7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상담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 몰입(M=3.57) 요인이 자기 효능감(M=3.46)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모두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elf-efficacy	148	2.67	4.33	3.46	.43
Job immersion	148	2.45	4.75	3.57	.55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 가족건강성, 직무 몰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739$,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Self-efficacy	Job immersion
Self-efficacy	1	
Job immersion	.739**	1

** $p<.01$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자기 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39$, $p>.05$). 연령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20대 집단과 40대 집단이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89$, $p<.05$).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492$, $p<.01$).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 및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40대, 500만원 이상 집단이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Levene's test		M	SD	t/F(p) Scheffe
		F	P			
Gender	Male	.391	.533	3.50	.44	.639(.524)
	Female			3.44	.43	
Age	20's(a)	18.015	.115	3.16	.17	3.189(.015)* a<c
	30's(b)			3.44	.42	
	40's(c)			3.53	.49	
	50's(d)			3.50	.42	
	60's and above (e)			3.56	.31	
Monthly income	Less than 1.67 million KRW (a)	4.253	.113	2.76	.16	4.492(.001)** a(f,c,e,b),d
	More than 1.68 million KRW - less than 1.99 million KRW (b)			3.40	.46	
	More than 2 million KRW - less than 2.99 million KRW (c)			3.53	.40	
	More than 3 million KRW - less than 3.99 million KRW (d)			3.38	.42	
	More than 4 million KRW - less than 4.99 million KRW (e)			3.53	.44	
	More than 5 million KRW (f)			3.92	.12	

* $p<.05$, ** $p<.01$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직무 몰입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98$, $p>.05$). 연령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84$, $p>.05$). 월 소득수준에 따른 직무 몰입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234, p<.001$).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은 성별, 연령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500만원 이상 집단이 직무 몰입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Difference in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Levene's test		M	SD	t/F(p) Scheffe
		F	P			
Gender	Male	1.410	.237	3.46	.44	-1.398 (.164)
	Female			3.61	.58	
Age	20's(a)	24.982	.061	3.31	.21	1.484 (.210)
	30's(b)			3.67	.34	
	40's(c)			3.63	.42	
	50's(d)			3.57	.86	
	60's and above (e)			3.58	.48	
Monthly income	Less than 1.67 million KRW (a)	2.569	.129	2.90	.08	5.234 (.000)*** a<e,f,c,b ,d
	More than 1.68 million KRW - less than 1.99 million KRW (b)			3.55	.32	
	More than 2 million KRW - less than 2.99 million KRW (c)			3.59	.37	
	More than 3 million KRW - less than 3.99 million KRW (d)			3.41	.44	
	More than 4 million KRW - less than 4.99 million KRW (e)			3.85	.52	
	More than 5 million KRW (f)			3.79	.26	

*** $p<.001$

3.6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 몰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34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4.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회귀식이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5.884, p<.000$). 자기 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

면, 자기 효능감($\beta=.739, p<.001$)은 직무 몰입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몰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ffect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Significance level
		B	Standard error			
Job involvement	Constant	.303	.249		1.220 ***	.000
	self-efficacy	.946	.071	.739	13.26 ***	.000

***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40대가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 및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40대, 500만원 이상 집단이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수준에 따른 직무 몰입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은 성별과

연령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500만원 이상 집단이 직무 몰입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 요인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몰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5]과 자기 효능감의 연계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6]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한 연구를 통해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수행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상담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직무 몰입,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교육,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콘텐츠 연구개발 등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 측면에서 내담자의 마음의 치유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변인인 자기 효능감을 통한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상담의 효과와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개인변인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성과 향상을 위한 개별적인 직무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Y. M. Choi, N. M. Yang J. Y. Lee, "Content Analysis of Korean Counselor Burnou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3, pp.581-598, 2002.
- [2] H. S. Lee, S. N. Choi, "The Influence of the Art Therapist's Therapeutic Experience,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the Therapeutic Outcom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7, No.1, pp.149-164, Jun. 2010.
- [3] E. S. Lee, *The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Emotional Labor of Art Psychotherapists on Job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bang Culture University, pp.49-59, 2021.
- [4] Hyun-Ah Choi, In-Gyu Kim, "The effects of work value of vocational counselor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 Mediator effect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2 pp.472-482, Feb.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2.472>
- [5] Sang Min Kwon, Mal-Suk Kwon, "Effect of nurses self-leadership, job involvement and empowerment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 pp.152-161,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52>
- [6] Kyong Min Park, "The effect of flight attendants' Person-Team environment fit on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6, No.5, pp.481-499, 2012.
- [7] An, MiSoon, Jung, MinSu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flection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pirituality of counselor and counseling outcom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28, No.2, pp.119-146, May. 2017.
DOI: <https://doi.org/10.23909/KJCC.2017.05.28.2.119>
- [8] Hyun-Mi Na, Nam-Woon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dult Attachment,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and Empathy, Client's Working Alliance and Counseling Outcomes in Early Counseling Phas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2, pp.339-369, May. 2016.
DOI: <https://doi.org/10.23844/kjcp.2016.05.28.2.339>
- [9] H. Y. Kim,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ood art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and sociality : focusing on children in the child care institution and the community child center*,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pp.17-21, 2016.
- [10] H. J. Kang, *The influence of volunteer's emotional quotient on volunteer's voluntary work satisfaction lev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self-efficacy mediator effect*,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pp.39-42, 2016.
- [11] Sang Min Kwon, Mal-Suk Kwon, "Effect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4 pp.284-292, Apr.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4.284>
- [12] Y. G. Kim, "A study on influences of social workers'

- job stress and self-efficacy upon organization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14.
- [13] H. M. Park,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 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in regards to Personal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2013.
- [14] C. J. Hyun, *The Influence of Client Violence on Psychological Stability of Social Work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Resilienc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9.
- [15] B. O. Kim, *The Relations between Job Demand and Job Satisfaction of Rail Employees,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and Job Involvement*, Ph.D dissertation, Counseling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Seoul Han Young University, pp.56-57, 2017.

전 순 득(Soon-deuk Joun)

[정회원]



- 2021년 1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 2021년 1월 ~ 현재 : 고성복지 발 전연구소 마음쉼터 소장
- 2021년 1월 ~ 현재 : 주식회사 평 화산업 대표이사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